

광주과학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 6개 ‘역대 최다’

화학·지구과학·천문 3개 대회서 ‘금4 은1 동1’ 획득
‘R&E 연구활동 전교생 이수’ 교육과정 가시적 성과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 4명이 올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3개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모두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국제대회 수상 실적을 거뒀다. 광주과학고에 따르면 최근 올해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IOAA)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재학생 4명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5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는 3학년 임창호 학생이 금메달, 김도훈 학생이 은메달을 받았다. 92개국 368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 4명 모두 메달을 획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광주과학고 학생이다.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는 2학년 나효찬 학생이 개인 부문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가별 학생들이 섞여 팀을 이뤄 경쟁하는 단체 부문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회에

는 41개국 169명이 참가했다. 이어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는 3학년 윤예준 학생이 64개국 312명 가운데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과목별로 국가 대표 4~5명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다. 한 해에 학생 4명이 3개 국제대회에서 메달 6개를 따낸 것은 광주과학고 개교 이래 처음이다. 학교는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연구 중심 교육과정을 꼽았다. 광주과학고는 1학년부터 물리·화학·생명과 과학 실험 과목을 운영하며, 기초자율연구(1학년)~심화자율연구(2학년)~졸업논문(3학년)으로 이어지는 R&E 연구활동을 전교생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도 2026년 8개 영재학교 분석 보고서에서 광주과학고를 ‘전공 심화·연구 중심형, 1학년부터 실험 중심’ 학교로 분류했다. 특히 전국 초·중·고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5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임창호(3년) 학생.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5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도훈(3년) 학생.

문을 연 기초과학지원센터의 전자현미경 등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실험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 환경은 2014년부터 구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영재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운영비를 1대 1로 지원해 온 것도 뒷받침이 됐다. 학교는 이

를 바탕으로 실험 기자재와 R&E 연구,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광주과학고는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생의 5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학생으로 선발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과학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성과의



지난 8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나효찬(2학년) 학생.



지난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윤예준(3년) 학생.

의미가 크다. IOAA에서 금메달을 받은 윤예준 학생은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격려하며 함께 노력한 끝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천문학 탐구를 더욱 깊이 이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준상 교장은 “학생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선생님들의 헌신, 시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더해져 얻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과학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 중심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구례 청년하우스에서 구례 청년하우스 준공 및 입주기념식을 개최했다.

구례, 청년들 새로운 출발 응원

청년하우스 입주기념식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청년하우스에서 입주를 앞둔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구례군은 최근 구례 청년하우스에서 구례 청년하우스 준공 및 입주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입주예정 청년을 비롯해 장길선 군수, 문승욱 군의회 의장, 시공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현수막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현수막 제막과 열쇠 전달식에서는 ‘청년의 새 보금자리 첫 열쇠’가 입주예정 청년에게 전달됐다. 현수막 제막으로 청년하우스의 준공을 알린 데 이어, 열쇠 전달로 청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장길선 군수는 “청년하우스 준공은 청년들이 구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첫 번째 터전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이 살고 싶은 활력 있는 구례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장흥군, 3200억 염해간척지 활용사업 추진

산은인프라자산운용과 태양광발전사업 협약 체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32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간척지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된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SDN(주), ㈜더블유피 등 3개 기업과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덕읍 연지리와 회진면 회진리 일원의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00억여원에 달한다. 협약에 따라 장흥군과 주 투자기업인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행정절차 협력, 태양광발전시설 조성·투자, 지역주민과의 소통상생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염해 간척지의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성 산은인프라자산운용 대표는 “장흥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최근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SDN(주), ㈜더블유피 등 3개 기업과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지역상생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재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국립광주과학관,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상

기관 간 협력·과학문화 서비스 향상 성과 인정

국립광주과학관이 국립과학관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인사교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사진)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년도 정부인사교류 우수기관’에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 정부인사교류 우수기관 선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인

사교류를 통해 정책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한 성과를 평가해 이뤄진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선정에서 정부인사교류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대상 과학문화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립과학관 가운데 최초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인사교류는 우수 인재를 일정 기간 상호 교류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나누는 제도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전시, 교육, 행정 분

야의 운영 경험을 공유해 왔다. 또 과학관 간 교류와 협력을 넓히고 공동 전시 기획, 연구 협력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정부인사교류를 기반으로 교류기관 간 연간 회원제 연계를 확대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과학문화 사업을 발굴·운영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전시 전략을 수립하고 전시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주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9월 2일)

쥐 48년생 재물 관계에 속을 속 칼이 있다
60년생 냇가에 사는 영감의 말을 듣지마라
72년생 밭길을 걷다가 보물 줍는 날
84년생 말없는 재물이 오고 모두 차차 풀린다
96년생 다른 사람 시기로 마음이 약해 진다
토끼 51년생 남의 재산 탐내면 나의 보물을 잃는다
63년생 마음을 조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
75년생 금전상의 이익과 기쁨이 올 것
87년생 눈물로 강을 건넌으나 얻지 못한다
99년생 상사 지사를 받으면 몸이 편안하다
말 54년생 집이 편하지 못하고 힘이 모자란다
66년생 후배를 통해 재물을 얻을 것
78년생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있다
90년생 어렵게 만든 서류가 각하돼 억울하다
돼지 57년생 외부 위세보다 실속을 채워야 한다
69년생 재산을 허비해도 손해만 있다
81년생 지인과 다툼으로 일이 늘어진다
93년생 시험공부에 마음이 급하다

소 49년생 보물을 봐도 버리는 취하지마라
61년생 분주하고 때가 돼도 이뤄지지 못하다
73년생 우연한 계기로 일이 성사될 것
85년생 선배의 도움으로 일이 성립된다
97년생 응시는 곤란해도 취직은 될 것
황소 52년생 권세를 잡으니 이름을 떨치고 싶다
64년생 나도 모르게 손해 보게 되니 대비하라
76년생 욕심을 부리면 본전을 잃는다
88년생 일이 풀리고 기쁨이 집안 가득한 날
양 55년생 간사한 지인과 거사를 도모하지 말아라
67년생 힘을 들여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79년생 친구와 협력해 지혜 얻지만 손재 온다
91년생 의리가 아닌 것을 취하지 말라
개 58년생 두 개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이 길하다
70년생 과거를 잊고 평화 위주로 살아라
82년생 직장을 얻기 위해 멀리 가면 진퇴 양난
94년생 지인 말을 하나도 빼지않고 경청하자



강인수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생물이 불을 만났으니 근심이 풀린다
62년생 재물을 뜻해 두지 말고 몸을 생각하라
74년생 지금부터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
86년생 무당 말을 들으면 손해가 크다
98년생 뒷 사람과 의논하면 큰 힘이 될 것
범 53년생 유별나게 행동 말고 관례를 준수하라
65년생 재물을 얻으려다 물속에 버리는 날
77년생 추진하는 일이 진퇴 양난
89년생 경거망동 하면 패자 망신
원숭이 56년생 사람 말을 듣지마라
68년생 천재 일우를 놓치지 마라
80년생 귀인이 사리에 꼭 맞는 권유를 할 것
92년생 이성의 꼬임에 공부가 되지 않는다
돼지 59년생 귀인 도움으로 문서를 잡는다
71년생 재물에 관한 욕심을 적게하라
83년생 단체 가입은 물러서면 길하다
95년생 귀인이 도와 보물을 얻는 날